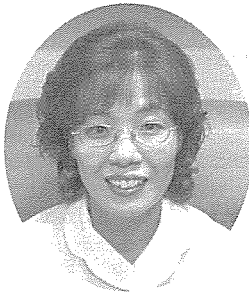


|| 발간사 ||

능력 있는 산업간호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백금주

인천지부장 / 선창산업(주)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무더위도 입추을 지낸 가을바람에 쓸려 멀리 물러가고, 밤이면 이불깃을 끌어 당겨야만 잠을 청할 수 있으니, 자연의 오묘함이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이 절로 납니다.

답답하고 가깝게만 느껴졌던 하늘도 파란빛을 더하며 하늘 높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며 시원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제가 산업장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하고도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같아선 한 5년이나 되었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다 산업간호사로 또한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해 보니 상사가 지시하는 품의가 뭔지, 기안이 뭔지, 또한 통보를 하라는데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하여 내 자신이 무능력함에 우울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한 생소한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여기저기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도움도 청하기도 여러번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장에 갓 입사한 선생님들이 제게 이것저것 도움을 청하니 세월이 많이도 흘렀음을 실감합니다.

제게 도움을 청한 선생님들께 선배로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첫 번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전에 꼭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가 그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끔 착각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100% 만족해 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실행하기 전에 꼭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업무가 생산성에 방해가 되면 그 또한 안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문인으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또한 프라이드도 대단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남들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바로 외톨이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동안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지내야 하는 동료들인데 그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다면 그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주장을 무조건 들어주길 바라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맡은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 여러 가지 처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몇 달만에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인정을 않는다면 내 업무의 자존심을 걸고 몇 번이라도 요구를 해야겠지요.

저또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내 왔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바로 윗상사의 괴롭힘(그 당시의 느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때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며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지 모릅니다. 그 분이 지금까지 함께 근무를 했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라도 대접을 했을 텐데 가슴 아프게도 IMF상황에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산업장에 들어왔을 때(95년도) 인천지부회원들이 70명이상이 되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한 명 두 명 본의 아니게 산업장을 떠나가더니 지금은 인천지부 회원수가 40명 남짓합니다. 같은 일을 하며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나만이 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보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간호협회나 노동청, 또한 산업안전공단과도 연계하여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확고히 하여 산업장 내에서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능력있는 산업간호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산업간호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